

종합

쌀값 폭락 항의 '나락 야적 시위'

쌀값 폭락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비 야적 투쟁이 전남지역 곳곳에서 시작됐다. 특히 농민들은 당분간 시·군 농민회를 중심으로 시위를 전개한 뒤 다음달 '농민의 날'을 전후로 대규모 투쟁을 예고하는 등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반발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소속 농민들은 30일 전남지역 10여개 시·군청 및 농협지부 앞에 벼를 쌓아놓고 쌀 생산비 보장과 대북 쌀 지원 법제화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나주시 농민회는 이날 나주시청 앞에 40kg들이 벼 6천가마니를 야적했고, 해남 농민

장흥 등 전남 10여개 시·군 동시다발 집회 내달 17일 서울 농민대회...반발 격화 될 듯

들도 군청 앞에 벼 4천가마니를 쌓아놓고 '선지급금 5만원 보장'과 '재고쌀 자체수매' 등 쌀값 안정화 대책을 촉구했다.

또 장흥과 고흥, 무안, 보성, 순천, 화순, 진도지역 농민들은 각 시·군청이나 농협지부 앞에 벼 200~1천가마니를 쌓았으며, 강진과 함평 농민들도 다음달 1일과 3일 각각 야적 시위를 앞두고 있다. 해남은 다음달 2일 쌀값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벼 1만가마니 이상을 야적할 계획이다.

이날 시위에서는 물리적 충돌도 빚어졌다. 장흥경찰은 이날 야적 시위 도중 농협 조합장실에 들어가 명패를 깨뜨린 장흥군 농민회 김모(41)씨를 연행했다.

김씨는 이날 장흥군 정남진농협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벼를 들고 농협 영업장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명패를 깨뜨렸다가 1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은 당분간 시·군 지회별로 야적 시위를 전개하는 한편, 다음달 11일 '농민의 날'을 전후로 각 면 지회까지 야적 시위를 확대하는 등 투쟁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다음달 17일에는 전국 농민들이 참가하는 농민대회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반발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경호기자 choice@

시설

신종플루 '사각지대' 관리감독 강화해야

최근 신종플루 환자가 급속히 늘고 사망자가 하루 3~4명씩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이나 학원, PC방 등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한다. 특히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경로당 등 사회시설은 재정 문제 등으로 방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광주의 경우 30일 현재 신종플루와 관련해 교육청에 신고한 유치원원은 단 2곳뿐이다.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휴업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학원이다. 통제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다. 휴업으로 학교에서 쉬는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걸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원은 '감염 사각지대'와 다를 없다. 사정이 이런 데도 교육당국은 "여력이 없다"며 실태 파악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각종 복지시설과 경로당 등 집단 사

회시설도 걱정이다. 빠듯한 운영비로 예방 조치를 완벽하게 취하기 어려운 데다가 방문객 발걸음만 끊어줘 외부 지원도 실통치 않기 때문이다. 이들 시설은 신종플루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학교가 휴업을 할 경우 후속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지는 만큼 인근 PC방 등 등교하지 않은 학생들이 드나들기 쉬운 장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교에서 무료 급식 혜택을 받는 학생들의 급식 문제나 저학년의 경우 맞벌이 가정, 결손 가정 자녀를 돌보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백신 효력이 나타날 때까지 공백 기간을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 당국은 하루빨리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강제력을 동원한 적극적인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대 '郡 지역 할당제' 바람직하다

서울대가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생을 뽑는 기회균형선발전형 인원을 140명에서 190명으로 늘리고 '군(郡) 지역 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1학년도부터 전국의 모든 군지역에서 최소 1명씩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게 됐다.

서울대는 5년 전부터 지역균형선발전형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는 광역 시·도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고르게 입학생을 뽑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벽지에 사는 군 단위 지역 학생들은 뽑히지 못한 채 절반 가량의 신입생이 수도권 출신이어서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전국 86개 군 단위 중 17곳은 지난 3년간 서울대 입학생을 1명도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 할당제 도입은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은 물론 농어촌 벽지학교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내년부터 정원 배정 방식 변경으로 교사 수가 대폭 줄어들게 된 전남지역 농·어촌 학교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군 지역 할당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착된다면 학업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해 왔던 기존 대학입시제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눈앞의 수능성적보다는 학생들의 지적 잠재력을 더 높이 평가하는 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 구성의 다양성이 갖는 교육적 이점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나후 지역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면 서울대의 학생 구성은 한층 다양해지고 학생들의 집단 경험도 그만큼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다. 군 지역 할당제가 서울대와 농어촌 학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보·성·녹·차 올 최고의 파워브랜드

보성녹차가 올해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파워 자치브랜드로 선정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다.

30일 보성군에 따르면 한국지역 브랜드포럼이 올해 처음으로 개발한 지방자치브랜드 경쟁력지수(LBCI) 평가에서 보성녹차가 최고의 파워브랜드에 선정됐다.

또 농·축·수산물 브랜드와 도시공동브랜드, 관광브랜드 3개 부문에서 보성녹차와 보성녹차가 부문별 1위에 선정돼 우수 브랜드상도 함께 받았다.

보성녹차는 군수품질인증제 시행과 지리적 표시제 등록 등을 통해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국제유기인증을 획득하는 등 소비자의 신뢰를 높인 점이 인정받았다.

또 맛있을 먹여 키운 보성녹차는 일반 돼지고기보다 지방이 적어 맛이 쫄깃하고, 돼지고기 특유의 노린내가 없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돈육 분야에서 우수 브랜드로 자리 잡은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지방자치브랜드 경쟁력지수 평가는 전국 248개 지자체가 보유한 995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1차 온라인 조사와 2차 오프라인 조사를 해 이뤄졌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광주 시민의 날 기념식 '제44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30일 오전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박광대 광주시장 등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민의 날 행사는 해마다 11월 1일 열리지만, 올해는 휴일이 겹쳐 이날 열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2020년 매출 4,000억 弗 시대 연다

창립 40돌 삼성전자 '비전 2020' 발표 3분기 매출·영업이익 사상 최고 실적

11월 1일 창립 40주년을 맞는 삼성전자가 '초일류 기업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삼성전자는 30일 오후 4시 서울 서초사옥에서 이윤우 부회장과 최지성 사장 등 최고경영진과 협력업체 대표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0주년 기념식과 비전선포식을 열었다.

삼성전자는 이 자리에서 창조적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해 인류의 삶을 이롭게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 2020 : 미래 사회에 대한 영감, 새로운 미래 창조(Inspire the World, Create the Future)'를 발표했다.

또 올해 1천100억 달러(추정치·약 130조원) 수준인 연간 매출 규모를 2020년에는 4천억 달러(약 473조원)로 늘려 세계 IT 업계에서 압도적 1위에 올라서고, 글



로벌 10대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올해 19위 (인 브랜딩 조사)를 기록한 브랜드 가치 글로벌 순위에서 5위로 도약하고, 존경받는 기업 10위, 친환경 기업 선두그룹(top-tier) 진입 등을 통해 창조적인 리더와 전 세계 인재가 모두 일하고 싶어하는 초일류 기업으로 변모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또 세트, 부품 위주의 사업 구조를 소프트웨어, 솔루션 위주로 바꾸고 의료, 바이오, 환경, 에너지, 편의시설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영역을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추가해 21세기형 사업구조

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올해 3분기(7~9월)에 국내외 법인 사업장을 합친 연결기준으로 35조8천700억의 매출에 4조2천3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3분기 매출은 2분기(32조5천100억원)에 비해 10.3% 증가한 것으로, 종전까지 최고 기록이었던 작년 4분기(33조원)보다 2조8천700억원 많다.

영업이익도 전분기(2조5천200억원)와 비교하면 67.9% 개선된 것으로, 이전의 최고 기록이었던 2004년 1분기 실적(4조900억원·본사기준)을 2천210억원 웃돈다.

3분기를 포함한 올 들어 9월까지의 실적은 매출 97조500억원, 영업이익은 7조2천200억원이다.

이에 따라 남은 4분기(10~12월)에 영업이익이 2조7천800억원만 되면 삼성전자는 올해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100조·10조' 돌파라는 위업을 최초로 달성하게 된다. /연합뉴스

세무서 '사업자 등록' 전국 어디서나 가능

국세청은 30일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및 휴업 중 사업재개 신고 등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업무를 이날부터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그동안 전국 107개 세무서 상호 간에 관련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어느 곳에서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전산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다른 경우가 많아 세무서 방면에 따른 시간차,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추진된 것이다. /연합뉴스

현금서비스 취급 수수료 사라진다

금융당국 이자율 인하 추진

신용카드 회원이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 대출금의 일정비율로 받는 취급수수료가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30일 "취급수수료를 이자에 녹이는 방식으로 현금서비스 이자 부담을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카드사별 대출금의 4.0~4.5%(연 환산 기준)를 받는 취급수수료는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손실보전 성격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받을 명분이 없다"며 "카드사태를 거치면서 취급수수료 부분만큼 현금서비스 이자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취급수수료를 포함해 평균 26% 수준인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를 추

진하고 있다.

권력세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카드사의 연체율과 자금조달 비용 하락, 부수입무 확대 추진 등을 고려할 때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라고 밝혔다.

전업 카드사의 연체율이 2005년 말 10.1%에서 지난 6월 말 3.1%로 떨어졌고 만기 3년짜리 카드채 발행금리가 5.73%로 낮은 만큼 현금서비스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 4월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금융회사가 이자율을 산정할 때 수수료와 사례금,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해 고객에게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진 '프리미엄 호평쌀'

년 200여t 호주 수출길

강진에서 생산된 고품질 쌀인 '프리미엄 호평쌀'이 호주로 수출된다.

30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농협이 생산한 호평쌀을 다음 달부터 매달 16t씩 연간 200여t을 수출하기로 했다.

수출은 전남지역 농특산물 수출대행업체

인 ㈜남도미향과 호주 현지 수입업체인 동이(주)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이번 수출은 지역에서 생산된 쌀의 외국 판매처 확보, 강진 쌀 위상 제고,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추진됐다.

'프리미엄 호평쌀'은 2006년과 2007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전국 12대 우수 브랜드 쌀과 3년 연속 전남쌀 10대 브랜드에 선정됐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빛日만평

- 김종두

말짱 황 된것 같습니다

9월 광주·전남 광공업 생산 '호조'

자동차 81%·담배 45%↑ 등 증가세 이끌어

9월 중 광주·전남 지역 광공업 생산이 전달보다 크게 호전됐다. 자동차와 금속가공 등의 생산 호조 덕분이다.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9월 중 광주·전남 광공업 생산동향'에 따르면 9월 중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은 수요가 증가한 자동차를 중심으로 전기장비, 담배, 금속가공 등에서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7%, 전 달보다는 45.7%가 각각 증가했다.

주요 업종별로는 자동차가 81.3% 증가한 것을 비롯해 대형 냉장고와 세탁기 등 전기장비(25.6%), 담배(45.5%), 금속가공(16.5%) 등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윤현석기자 chadol@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濤濟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 1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사회 2부 2200-627	조 사 부 2200-571 (F A 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